

# “대선 사전투표 준비 착착...안심하고 참여하세요”

## 6·3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모의시험 가보니

### 사무원 등 장비 운용 요령 숙지·장애 발생 상황 대처 준비과정 점검...명부 확인부터 용지 출력까지 '이상무'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인 만큼 투표 과정에 한치의 의혹과 문제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10여일 앞둔 21일 광주 서구 능성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곳에서는 오는 29~30일 치러지는 6·3대선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준비하는 직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모의시험 1시간 전부터 사전투표관리관, 장비담당사무원, 명부담당기 담당사무원 등이 투표소 내부에 관외 투표소로 구분에 본인확인기, 명부단말기, 투표용지발급기 등을 설치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였다.

오후 2시 사전투표 모의시험 시작이 임박하자 긴장감이 팽들었다.

모의시험에는 실제 사전투표 때 투입되는 투표 관리관과 사무원 등이 배치됐다. 이들은 신분증 확인과 투표용지 발급 등 사전투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였다.

본인 확인기와 명부 단말기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끝나자 ‘정상적으로 확인됐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왔다.

이후 가상 모의 사전투표 용지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고, 통신망 끊김, 정전 등 돌발 상황에 긴급히 대처하는 훈련을 비롯해 전기가 끊겼을 때를 대비한 무전력 투표 진행도 차질 없이 마쳤다.

선거인 확인부터 투표용지 출력, 각종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1일 오후 광주 서구 능성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사전투표통신망 점검과 통합명부시스템 접속 및 모의투표용지 출력 등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돌발상황 대응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 모의시험 과정은 별다른 문제 없이 마무리됐다.

앞서 선관위는 사전투표율이 높아질 것에 대응하기 위해 투표 장비와 통신망을 점검·정비하고, 투표사무원의 모의투표용

지 발급 절차를 학습한 뒤 모의선거인명부 출력 등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한 차례 실시했다.

지난 1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모의시험은 안정적인 사전투표 준비와 장비 운용요령, 장애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모의시험은 사전투표에 따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투표와 관련한 장비 등의 운용 요령과 함께 장애 발생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익히는 과정이다”며 “향후 진행될 사전투표, 본투표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전투표 모의시험은 지난 19일, 21일에 이어 28일 마지막으로 진행됐다.

한편,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 투표할 수 있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 서구, 평생학습 공간 조성...18개 '동 캠퍼스' 운영

광주 서구가 주민들의 평생학습 공간인 '동 캠퍼스'를 운영하며 일상 속 배움의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서구는 21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18개 전체 동을 '동 캠퍼스'로 지정하고, 11월까지 82개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한다

고 밝혔다. '동 캠퍼스'는 작은도서관, 커뮤니티센터 등 생활권 내 공간을 학습 거점으로 활용해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세

대)'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동 캠퍼스'는 각 동의 BI(Brand Identity)와 연계한 특화 강좌로 주민 호응을 얻고 있다.

동 캠퍼스는 각 동별 특색을 반영해 운영 중이다. 치평동 '초록이 운동 치평', 화정3동 '손으로 즐기는 힐링타일', 서창동 '전통문화 토탈공예', 동천동 '생각이 자라는 독서 토론논술' 등이 대표적이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 “누구나 즐기고 체험하는 AI·SW 교육 축제”

### 24~25일 DJ센터서 '2025 광주시교육청 AI·SW 체험축제'

광주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하 광주교육연구정보원)은 오는 24~25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관 A·B·C홀에서 '2025 광주시교육청 AI·SW 체험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하고 광주교육연구정보원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AI·SW 교육의 대중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는 작년 대비 행사 공간을 한 개 더 추가로 확보하고, 체험 부스도 작년 79개에서 올해 103개로 24개 추가 개설하는 등 많은 학생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광주지역 초·중·고·특수학교의 학생

과 학부모, 교원, 일반 시민 등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미래를 여는 Code, AI'를 주제로 △AI·SW 교육 체험마당 △AI·SW 골든벨 △AI·SW 특강 △학생 사례발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AI·SW교육 체험마당'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72개 체험, 대학·기업·유관기관이 운영하는 31개 체험 등 총 103개의 다채로운 체험부스가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코딩·로봇·드론·생성형 AI·언플러그드 활동 등 다양한 콘텐츠의 부스를 체험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 없이 현장 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AI·SW 골든벨'은 24일 오후 1시 초

등학생, 25일 오전 11시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퀴즈를 통해 AI·SW 관련 지식을 겨룬다.

'AI·SW 특강'은 UNIST(울산과학기술원) 박재룡 교수가 특별 강사로 나선다. 박 교수는 'AI가 내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AI가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술들에 대해 강의한다. 또 AI와 보안·프라이버시 기술 분야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미래 직업군과 진로 탐색의 기회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참가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영감을 제공한다.

'학생 사례발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각 5팀이 '나를 바꾼 AI·SW'를 주제로 AI·SW 프로젝트 학습 경험 및 동아리 활동 사례 등의 스토리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민수 기자 joinsu@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지원 : 100%~80%  
본인부담금 : 0%~20%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무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치매, 노인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
- 그 외 65세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분

아침체조 (매일) | 웃음치료 (외부강사) | 간호사 케어

신속 고급 실내 | 음악 (외부강사 초빙) | 물리치료

**파인트리 요양원** ☎ 062) 236-3816  
광주 동구 남계길 23 (내남동)



광주 구청장협의회는 21일 동구 남광주시장에서 5월 정례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병내 남구구청장, 임택 동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 광주 구청장협의회 '청년 월세' 국비 지원 건의

### 7월부터 월 20만원 지급 중단 위기...5600여명 대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한 가운데 광주 5개 자치구가 국비 지원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1일 광주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에서 진행된 5월 정례회를 통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거주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청년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역시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 (최대 2년)의 월세를 지원한다.

광주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9월부터 청년 5668명(동구 900명·서구 920명·남구 508명·북구 2240명·광산구 1100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번 예산은 78억원(국비 39억원·시비 39억원)으로 6월까지 지급분이 확보된 상태다. 하지만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국비 미확보로 인해 7월부터 월세 지원이 중단될 전망이다.

협의회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5개 구가 힘을 모아 국토부에 국비를 요청하기로 했다.

광주 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의 안정적인 주

거권 보장에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며 "국토교통부 예산 미확보로 7월부터 지원 중단 위기에 놓였다. 국비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청년 월세 지원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5개 자치구정장은 이날 남광주시장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등 민생경제를 살렸으며, 시장 내 음식점에서 직원 40여명과 조찬을 가졌다.

광주 구청장협의회는 그동안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추진해 왔다.

지난 설 명절에는 지역 화폐인 '광주상생카드'에 자치구별 예산을 추가 투입해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 정책을 시행, 시민 체감형 지원책을 실현한 바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